

# 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 집단 반발 확산

### 회의 주도 총경 대기발령 비난 “국민 탄압정권 하수인으로 후퇴” ‘정부가 일 키웠다’ 비판 쏟아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추진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이 나자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경찰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경찰의 내부 불만이 들끓고 있다.

25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 내부에는 류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우리 손으로 지켜드려야 한다”, “정치는 죽었다”, “지휘부는 정권의 입맛에 행동하고 있다” 등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하나회의 12·12쿠테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개최된 검사회의, 법관회의는 테러입니까? 우리는 의견도 제시 못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장관 말대로 행동하는 식물 경찰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정부가 일을 키웠다’, ‘말 잘 듣는 경찰 건드려 왜 들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냐?’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게시글을 통해 ‘오는 30일 현장 탐장급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널리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저도 인재개발원에 방문했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응원했다”며 “저도 대기발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닌 국민의 경찰로 서고자 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은 누구의 명령인가”라며 “경찰의 민주화 역사를 뒤로한 채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경찰국 신설 조치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총경들

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중 경감(경찰대 14기)은 전남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현장탐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 경감은 경찰청의 류 총경 징계 조치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지휘관들 밑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일선 경찰서장급 간부인 전국 총경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총경도 2명씩 총 4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하나회가 12·12 쿠테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 사회로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임채민 기자



‘사랑의 과일바구니’ 나눔 행사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과일바구니 나눔행사’에 참가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통장단회원 등이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할 복숭아, 귤, 포도 등 과일바구니를 제작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 성폭행 피소 광주 기초단체장 “사실무근”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광주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광주 한 자치구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현직 구청장 A씨가 지난 주말 경찰 소환에 응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

다. A씨는 “고소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경찰에서도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이달 초 30대 여성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B씨를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해린 기자

##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문의전화 ‘빚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대면 면회가 25일부터 중단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졌다. 면회가 3개월여 만에 중단되자 광주 지역 요양병원 곳곳에서 면회 예약을 취소하거나 신규 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적용되는 대면 면회 전면 중단 지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면회객들은 투명 유리벽을 통해서만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대면 면회 허용 방침으로 전환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앞서 지난 20일 방역 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자 광주 지역 요양병원·시설에는 면회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다. 광주 광산구 A요양병원은 방역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십 여 건에 달하는 면회 관련 전화를 받고 있다. 대체로 예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취소할 내용을 문의하는 내용 등이다. 병원 관계자는 “면회 일정을 지난 주말로 앞당긴 일부 면회객들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평소 대비 1.5배 많은 면회량을 보였다”며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말 면회가 어려웠던 면회객들을 중심으로는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유리벽을 두고 하는 면회와 영상 통화가 무엇이 다르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도 더러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전면 중단과 함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임채민 기자

## 계곡서 추락...휴가철 안전사고 잇따라

여름 휴가철인 주말 동안 전남지역 휴양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34분께 무안군 영산강 산책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으며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가에 조성된 산책길을 지인과 걸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후 6시 53분께에는 순천시 송광면 한 계곡물 속에서 5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

됐다. B씨는 동호회 회원 7명과 하산하다가 실종됐다. 회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2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10m 아래 계곡에서 숨겨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이끼를 밟고 계곡에 미끄러져 계곡물 속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16분께 영암군의 한 물놀이장에서 10세 미만 C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군은 신고 3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환준 기자

**포장지 전문기업 디에스팩(주)**  
**눈에 띄는 디자인 포장지는 곧 매출이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음색 인쇄를 통해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동판 인쇄: 음색인쇄를 통한 음판비 절감

다양한 기성봉투: 고민하지 말고 구매하세요

다품종 소량생산: 비용, 재고 부담 절감

친환경 잉크: 인체에 무해한 EB잉크사용

디에스팩(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두로 70 (월전동 1250)  
TEL : 062) 942-0000 dsp0011@naver.com

**ECO 우리의 꿈 식품보다 더 깨끗한 포장지**

소중한 가족이 먹는 식품은 포장지부터 달라야 합니다!

▲ 지퍼스텐딩 파우치      ▲ 박스파우치

▲ 견수산물 / 농수산물 기성 봉      ▲ 농수산물 기성 봉투 (일반형, 숨구멍)

디에스팩의 기술력으로 동일한 사이즈의 제품은 합판하여 인쇄가 가능합니다.

디에스팩에서 친환경 EB잉크를 사용하여 동일한 컷 사이즈의 제품을 합판하여 인쇄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고객님의 재고 관리와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